



신안 해저 유물 상설전시실 만든다

국립광주박물관, 2013년 추진계획 확정

‘충효동 도자기’ ‘남도문화-순천’ 등 기획전
신창동 유적 13차 발굴... 가족프로그램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전시실을 개편해 신안 해저유물 전시실을 신설하고 충효동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유물 중심의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발굴된 유물 질과 양에서 최고, 최다의 수식어가 붙은 신창동 유적 발굴조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22일 국립광주박물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말 국립나주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실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선사·농경·고대문화실 전시를 개편하고 중·근세 문화실은 테마를 정해 연간 4차례 정기 교체 운영한다.

당초 박물관 개관 취지였던 신안 해저유물 전시실도 별도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신안 해저유물은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 일대에서 지난 1976~1984년 모두 11차례에 걸쳐 발굴됐다.

전시될 유물은 중국 절강성 용천가마 등에서 만들어진 14세기 중국의 청자, 백자 등 도자기 2만여점과

자단목 1000여점, 금속제품, 석제품 중에서 일부다. 이 유물은 그동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보관·전시중이었다.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획특별전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다. 지난해 화제 전시였던 ‘외규장각 의궤’ 전, ‘절강성의 보물’ 전 등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신창동 유적-2000년 전의 타임캡슐’ 전을 오는 3월3일까지 진행하고, 순천정원박물관 개막에 맞춰 해마다 지역의 유물들을 소개하는 ‘남도문화전Ⅳ-순천’(5월7일~6월30일) 전을 개최한다.

지난 1963년 첫 발굴조사를 시작한 광주시 북구 충효동 도요지 발굴 50주년 기념 ‘충효동 도자기’(7월23일~10월6일) 전을 통해 삼강정자, 분청사기, 백자 등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대성해 충효동 도자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되돌아본다.

올해 마지막 전시인 ‘풍속(風竹)’(11월12일~내년 2월2일) 전을 통



지난해 50만 관람객을 돌파한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상설전시실을 개편하고 다양한 테마를 결집한 전시를 선보인다. 사진은 ‘신창동 유적-2000년 전의 타임캡슐’ 전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서는 이정도의 ‘묵죽도’ 등 조선시대 묵죽도와 대나무가 그려진 도자기와 대나무를 현대 작가들이 사진, 한국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신창동 유적 13차 발굴조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기원전 1세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생활 그리고 무덤의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신창동 유적은 지난 2011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수전(水田)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동 유적 850여점에 대한 보존처리와 유물 진공포장 작업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고 광주·전남 지역의 다가가는 문화중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Go古~ 신창동 어린이 시장’ 등 어린이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박물관’ 등 가족 동반 프로그램 등 모두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54만2188명을 달성,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찾았다. 지난 2009년 28만349명에 비해 47% 증가한 것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외규장각 의궤, 우리말로 읽는다

한국고전번역원, ‘의소세손예장의궤’ 등 번역 착수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우리말로 번역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11년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외규장각 의궤 중 의소세손(1750~1752년)의 예장 모습을 담은 ‘의소세손예장의궤’에 대한 번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소세손은 조선 제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의 장남이자 22대 왕 정조의 친형으로 세손에 책봉됐다 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정조 때 사도세자와 비 헌경왕후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제사 지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경모궁의궤’(사진)를 번역 출간할 예정



이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와 형법인 ‘대명률직해’, 북간도와 백두산 일대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북여요산’ 서업의 벼슬 진출 문제를 다룬 ‘통책촬요’ 등도 번역된다.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점·점·점-점점으로 표현된 빛의 세계’

조근호 개인전 2월26일까지 갤러리 리체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건 점(點)이다. 그 점들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들판을 달린다.

특히 삭막한 도심의 풍광을 감싸안은 점은 세파에 지친 현대인에게 작은 위로를 준다. 화려한 색깔과 어울린 점들은 강한 인상을 주며 캔버스를 마추는 관람객을 빨아들인다.

조근호 개인전이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갤러리 리체(광주시 남구 진월동 특화빌딩 지하1층)에서 열린다.

‘점·점·점-점점으로 표현된 빛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씨는 다양한 색깔의 점들을 마음껏 풀어놓은 ‘가을 들녘’, ‘도시야경’, ‘가을’ 연작 등을 선보인다. 캔버스에 등장하는 풍경은 초점을 벗어난 피사체처럼 묘사되지만, 오



‘들’

히려 실제적인 미감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조씨는 조선대 미대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5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제5회 광주신세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홍콩 컨템퍼러리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23-630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엔 ‘기분좋은 극장’이 있다

‘극적인 하룻밤’ ‘행복’ 등 풍성한 공연 선봬

지난 2009년부터 광주 기분좋은 극장(상무지구 우체국보원 14층)에서는 대학로에서 흥행한 작품들이 정기적으로 공연된다.

유쾌한 상상이 기획한 ‘연극이 좋다’는 매년 10여편을 한달간 장기 공연하며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 있다. 상연작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등 큰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는 장르다.

올 시즌의 첫 스타트는 사랑에 상처 받은 남녀가 우연찮게 하룻밤을 보낸 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극적인 하룻밤’(1월3일~2월3일)이 끝났다.

올해 두번째 작품은 ‘행복<사진>’

(2월14일~3월17일). 코넬리아디란지 중후군(심하게 웃거나 웃으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희귀병)과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보고싶습니다’의 이선희 작가와 정세혁 연출의 작품이다.

꼭소 코믹연극 ‘달링’은 ‘라이어’의 레이쿠니 원작을 각색한 연극으로 오는 3월21일부터 한달간 상연된다.

이어 만나는 작품은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4월26일~5월26일)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진화가 시대의 왕따, 진성에게 나타나 사랑을 이루어 주기 위해 7가지 사랑의 기



회를 주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상반기 마지막 작품은 화제를 모았던 연극 ‘작업의 탄생’ 2탄인 ‘선수의 탄생’(6월1일~30일)이다. 전작에서 짜질남의 대명사였던 서민준이 작업의 선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시 횡단 프로젝트 광주’ 참가자 모집

亞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 횡단 프로젝트 광주’(2월19일~24일)를 진행한다.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는 평화, 인권, 민주의 도시 광주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예술 흐름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다.

추진단은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33년,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지도만들기 워크숍’은 개인이 어떤 장소에 대해 가진 시간을 연결하는 기억의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참가 대상은 광주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진 10대~70대다.

‘청소년 거리극·움직임 워크숍’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한 움직임 워크숍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10명을 모집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며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문의 062-230-01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K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물)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 나무꾼, (현지직물) 몽골리안마사쑈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톨, 개인비용, 현지직물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설연휴기간 3만원추가)

태백산 눈꽃축제 1박2일 ₩159,000원

커피박물관/설악산/낙산사/정동진/석탄박물관/태백산 눈꽃축제장
출발일 1월26일, 29일, 30일, 31일 / 2월1일, 2일
숙소: 낙산 메리엘콘도(5인1실 이용기준)2-4인실사용시 요금추가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사항: 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6할인권

백두대간 선자령 풍차길 눈꽃트래킹 ₩45,000원

대관령기상대 - 양떼목장 - 통신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래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출발일 1,2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1월 19, 20, 26, 27일 2월 2, 3, 9, 10, 16, 17, 23, 24일
협찬: 사랑밭방부어